DMZ에 흐르는 평화의 선율

문체부-한국관광공사, '문화로 이음 : 디엠지 평화음악회' 9일 성료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첼리스트 요요마 등 국내외 음악가 참여
8일 '요요마 더 바흐 프로젝트-효성과 함께하는 평화콘서트'도 진행

세계 정상급 첼리스트 요요마가 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문화로 이음: 디엠지(DMZ) 평화음악회'에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을 연주하고 있다.

전쟁과 갈등, 긴장의 공간이었던 비무장지대(DMZ)에 평화의 화음이 울려퍼졌다.

세계적인 음악가 요요마(Yo-Yo Ma)의 아름다운 첼로 연주와 안숙선 명창의 소리, 사물놀이 대부 김덕수의 흥겨운 장구가 어우러진 '아리랑' 무대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주최한 '문화로 이음: 디엠지(DMZ) 평화음악회'가 9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하고, 비무장 지대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평화 지대로 탈바꿈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민간인통제선 내 유일한 철도역으로 지난 2008년까지 북측과의 철도 연결을 담당하는 등 지금까지 남북 평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상징적 장소'가 된 도라산역에서 행사가 열려 의미가 더했다. 지난해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부터 지난 6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까지, 비무장지대(DMZ)는 지금 순간까지도 역사적 사건들의 배경으로서 남북 관계의 최전선을 상징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평화기원 리본 묶기'로 시작된 이날 음악회는 요요마를 비롯해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 전통음악 예술가 김덕수와 안숙선, 싱어송라이팅 포크 듀오 옥상달빛 등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음악가들이 참여,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중국계 미국인인 요요마는 7세 때 레너드 번슈타인과 협연해 눈길을 끌었으며 그래미상 통상 16회 수상, 누적 음반 판매량 1000만장을 기록한 정상급 첼리스트다. 특히 개인 연주활동과 함께 전 세계 연주자들과 '실크로드 앙상블'을 조직,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전 세계 국경과 경계를 문화와 음악으로 허물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 레바논 분쟁 현장 등 6개 대륙 36개 도시에서 '더 바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의 '요요마 더 바흐 프로젝트-효성과 함께하는 평화콘서트'에서 그는 2시간 30분에 이르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협주곡' 6곡 전곡을 연주,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요요마가 한국에서 '무반주협주곡' 전곡을 연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또 7일에는 SM엔터테인먼트 이성수 본부장 등과 'K팝의 미래와 문화기술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를 주제로 토크쇼도 진행했다.

도라산 평화음악회 개막 무대는 '천하제일 탈공작소'의 탈춤연희 퍼포먼스 '양주별산대놀이', '강령탈춤'(북한 전통탈춤) 무대로 꾸며졌다. 이어 무대에 오른 요요마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연주했고, 한국 뮤지션들과 함께 남북 분단 이전에 만들어진 한국의 노래도 협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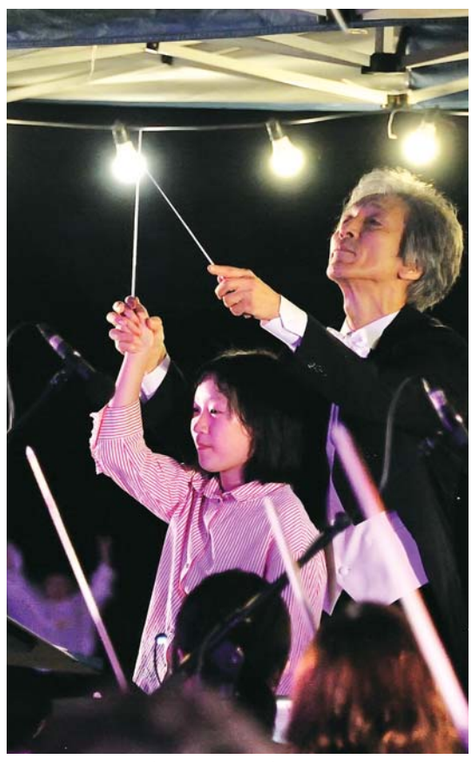
이어 피아니스트 김철웅은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연주곡으로 이면상의 북한곡 '환희의 노래'와 자신이 편곡한 '아리랑 소나타'를 선보였다. 옥상달빛은 분단 이전의 동요와 함께 자작곡들을 공연했으며, 김덕수와 안숙선은 다양한 남도 민요, 작창곡들을 무대에 올렸다. 마지막 무대는 요요마와 김덕수·안숙선의 흥겨운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장식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실향민, 탈북민, 6·25 참전국 등 재한외국인, 인근에 주둔하는 국군과 미군 등도 초대받아 참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자유로웠던 클래식음악회

광주시향 'GSO 프롬스' 개최
어린이 5명, 지휘 참여 '눈길'



8일 야외음악회 'GSO 프롬스' 무대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을 지휘하고 있는 어린이 협연자와 김홍재 상임지휘자. 〈광주시립교향악단 제공〉

'공연장 밖으로 뛰쳐나온 클래식.'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지난 8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잔디마당에서 음악회 'GSO 프롬스(PROMS)'를 개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야외 음악회로 기획돼 잔디마당 곳곳에서 클래식 버스킹, 음악놀이터 등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은 종일 비가 오면서 대극장 로비로 자리를 옮겨 진행했다.

한편 메인 콘서트는 예정대로 오후 8시 잔디마당 앞 특설무대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야외 공연으로 진행했다. 조금씩 내리는 빗속에서도 잔디마당을 채운 관객들은 휴대용 우비를 쓰고 공연을 즐겼다.

이날 공연은 정숙한 분위기의 여느 클래식 음악회와 달리 '자유로운' 점이 특징이었다. 관객들은 휴대폰으로 공연 영상을 촬영하거나, 감상 도중 다른 관객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등 편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즐겼다.

이날은 메인 콘서트는 대극장 외벽에 박상화 미디어 아티스트의 미디어 파사드 작품을 투사하며 막을 올렸다. 주페의 '경기병 서곡'에 이어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을 정은지(광주시향 플루트 수석)가 독주 무대로 선보였고, 다양한 악기로 고양이 울음소리, 시계 소리 등을 표현한 앤더슨의 '춤추는 고양이', '고장난 시계' 등을 무대에 올렸다.

특히 공연 중 관객이 직접 포디엄에 서서 광주시향을 지휘하는 독특한 체험 무대가 눈길을 끌었다. 심서연(성덕초) 등 5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김홍재 지휘자와 함께 지휘봉을 잡고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지휘했으며 관객들은 박수갈채로 아이들을 응원했다.

차츰 빗줄기가 굵어지자 무대 위 임시 천막에서 비가 새 악기가 젖었고, 공연은 앤더슨의 '나팔수의 휴일'을 끝으로 예정보다 40여분 일찍 막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신문으로 빛으로…'기록된 풍경'

미디어 아티스트 정운학 개인전 17일까지 무등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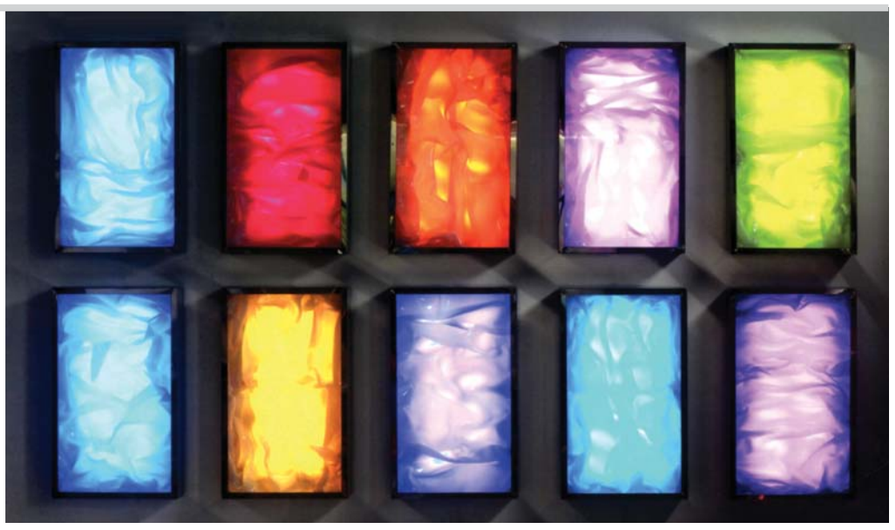
미디어 아티스트 정운학 작가의 작업에서 '빛'이 빠진 모습은 얼핏 상상하기 어렵다. 전시장에서 만난 일부 '정물' 작품들은 빛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조형성이 강조되고 공간감이 드러나 색다른 느낌으로 신선하게 다가왔다.

미디어 아티스트 정운학 개인전이 오는 1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열린다. 11번째를 맞이한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기록된 풍경'. 이번에 작가는 장소의 특성과 다양한 사물들의 특성을 기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정 작가가 오랫동안 오브제로 사용해온 신문은 이번 전시 작품에서도 주 소재로 활용됐다. 신문이라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가장 큰 의미가 '기록'이고, 그 속에는 역사와 삶의 모습 등 다채로운 내용들이 담겨 있다.

관람객들은 처음엔 "이게 무슨 형태일까?"라는 궁금증에서 작품 관람을 시작하지만 이윽고 작품 속에 새겨진 텍스트와 사진까지 읽어내며 또 다른 발견을 하게된다.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수묵 느낌의 작품은 '무등산'과 관련한 기사가 담긴 신문만으로 제작해 독특한 느낌을 준다.

또 화병, 접시 등 정물처럼 보이는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그 속에 오바마 대통령이 보이고, 다양한 기사까지 읽힌다. 신문을 필름으로 출력한 후 구겨서 조형성을 만든 후 에폭시를 발라 제작한 작품들은 의도하지 않은 구겨짐에 따라 색상과 조형이 무한대로 변신, 보는 즐거움을 준다.

이번 개인전에서 새롭게 선보인 작품은 구체적인 형상 대신 구겨진 플라스틱과 다양한 빛만을 활용해 완성한 추상작품이다. 자연스러운 구겨짐과 알록달록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는 10개의 미디어 작품이 함께 어우러져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어낸다. 총, 화병, 과일 등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또다른 '정물' 시리즈는 실재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표작인 '흔들리는 부처'도 만날 수 있다.



'기록된 풍경'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미술학교,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 등에서 수학한 정 작가는 2014년 광주국제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예술감독, 광주 세계엑스포 시민 파빌리온 미술감독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무등갤러리 전 공간을 활용해 좀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아동문학가 서향숙 작가, 동시집 '하품하는 땅' 펴내

"난 자연을 너무나 좋아하지요. 그래서 사진기를 메고 훌쩍 여행을 떠나요. 멋진 경치를 보고 마음의 울림을 받으면 사진기의 셔터를 눌러대어요. 자연에서 받은 영감과 시상은 노트에 적어두지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작은 것들, 소소한 일들, 아이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 놀이 등도 세심하게 관찰하여 노트에 메모해 두지요."

방정환문학상과 새벗문학상을 수상한 아동문학가 서향숙 씨가 신작 동시집 '하품하는 땅'(소야주니어)을 펴냈다.

이번 동시집에서 작가는 어린이의 마음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무엇보다 소재의 폭이 넓다. 가족, 학교, 사물, 놀이 등 카테고리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면도하는 아빠에게서 과거 유행했던 산신령 이미지를 끌어내기도 하다가('아빠는 산신령'),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고상한 오케스트라를 상상하기도 한다('비오는 날의 오케스트라'). 또한 멀리 해외 여행의 경험에서 얻는 소재들을 동시로 형상화해 아이들에게 간접경험을 하게도 한다.

동심을 담아내는 시어도 다양하다. 채송화가 꽃샘추위에 '오소소 떨고' 있으며, 산골마을 식구들은 '벙시레 벙시레' 웃고 있다. 의성어, 의태어 외에도 다양한 대화체가 구사되고 대상 또한 새롭게 묘사된다.

"춥고 지루한 겨울 내내/ 웅크리고 잠만 자던 땅/ 사알살 깨어나서/ 커다랗게 하품하고 있어/ / 길게/ 더 기일게/ 하품하는 땅// 하얗게/ 더 하얗게/ 일어서는 땅."

표제시 '하품하는 땅'은 '아지랑이'를 "커다랗게 하품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길게 하품할수록 더 하얗게 일어서는 땅'에서 보듯 시인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를 노래한다. 어린이의 마음을 다채롭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동심에 대한 애정이 읽혀진다.

한편 서향숙 작가는 동시집과 함께 가사동화집 '하늘바위'도 발간했다. 한국 가사 동화 100인선집 일환으로 나온 동화집은 "친숙한 리듬감과 편안한 율동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 시인은 명지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공무원문예대전 국무총리상과 2018년 KBS창작동요대회 가사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동시집 '자음 모음 놀이', 동화집 '날개달린 사자', 동요집 '시골 빈 집에'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특별 월 회원모집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 클럽

개인 (월) ₩ 300,000

회원 특전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 10% 할인
- 객실 이용시 ·····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

상담문의 062-228-4711,2/221-4101, 3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